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90호 【루계 제24868호】 주체104(2015)년 3월 31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26일과 27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거둘것을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체육은 국력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까운 몇해안에 조선을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체육인들이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서한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인디아의 신문 《스테이츠맨》과 지뉴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프랑스의 RTL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체육경기를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꽁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전국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킨샤사

민주꽁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전국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민주꽁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창건 13돐에 즈음하여 귀 당 전국집행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3월 30일 평양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주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로조친선협회 위원장인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부수상 알렉싼드르 페도쏘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3돐경축 빼루준비위원회가 18일 리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가, 부위원장으로 빼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 로빼라가, 서기장으로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결정서가 18일에 발표되였다.

결정서에 의하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와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꼬스젠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에는 벨라루씨, 까자흐스딴을 비롯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망라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경축 에스빠냐준비위원회가 19일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에 대한 토론회, 경축모임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앙골라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 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 앙골라위원회 위원장대리 엘리아스 디쎈고모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이다.

네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나갈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도의 극장, 음악당, 회관들에서 여러 부류로 나뉘여 단독, 조별, 경축공연형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수령흠모의 송가들이 울려퍼지게 될 축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주체예술발전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해나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게 될것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3월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뛰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온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남포수산사업소에서 3월 석탄생산계획과 수산물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3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 1월과 2월에 거둔 전투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3월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석성탄광에서 29일현재 3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성탄광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전반적탄광들에서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석성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배수능력을 적극 높이면서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사회주의경쟁의 맨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1갱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탄부들은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2갱의 굴진공들이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버럭처리속도를 부쩍 높이면서 굴진성과를 확대하였다.

한편 탄광의 보장단위들에서 설비부분품과 자재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 석탄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명천탄광, 양정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선두로 하는 남포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남포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서해의 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련일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2월말 지난해보다 10일이상 앞당겨 일제히 바다에 진출한 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높이 세운 3월 수산물생산계획을 1.4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 앞장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가 서있다.

올해에 들어와 첫 어로전투에서부터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과학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대축전장에 들어설 만만한 투지에 넘쳐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올해에 기어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은 어획고를 높일수 있도록 모든 배들을 만능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배무이 및 배수리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지난해보다 열흘이상 앞당겨 출어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사업소의 어로공들은 고기배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수산물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녀성어로공들이 격랑을 헤치며 서해의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잡이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이른새벽 몸소 바람세찬 포구에 찾아오시여 바다에 진출한 전세대 처녀어로공들을 만나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심장에 새긴 사업소의 새세대 녀성어로공들은 과감한 어로전투를 벌려 계획보다 1.5배에 달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소적으로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녀성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에도 기망회수를 늘이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녀성어로공들에게 뒤질세라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배들간, 교대간 어군감시협동을 강화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기동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은 변화되는 어장상태를 제때에 통보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후방물자보충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 수산물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수산물생산실적이 올라가는데 맞게 수산물가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배들인 《10.6》호와 《2.24》호의 현대화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현장에 자주나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 고기배의 현대화실현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에 의해 수산물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설비생산성과 확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기계설비생산기지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압축기와 수문바퀴를 비롯한 대상설비생산이 총량의 80%계선으로 치닫고있으며 기업소에서는 설비들을 완성되는 족족 건설장으로 떠나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정초부터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기계공업성의 방조밑에 련합기업소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하루빨리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로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기업소구내와 작업현장들에 혁신의 새 소식을 알리는 속보들이 련이어 나붙고 기동예술선동대와 방송선전차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전투장의 분위기는 고조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지휘부 일군들이 현장에 찾아와 진행한 정치사업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참모부일군들은 공정간, 직장간 련계를 긴밀히 하고 소재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질좋은 주물품소재를 앞질러 가공부문에 보내주며 조립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아나선 선군주철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여러가지 주물소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리경일, 류성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용해공정과 부원료준비, 조형, 사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앞선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원단위소비기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질좋은 소재들을 짱짱 생산하여 다음공정들에 넘겨주고있다. 용해작업반에서는 실정에 맞는 새로운 내화물재료를 도입하여 중주파유도로수명을 몇배나 늘이였으며 조형작업반에서는 수십개나 되는 여러가지 장비들을 새로 받아들였다. 완성작업반에서는 새로운 압축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정이 긴장한 속에서도 사락기공구들을 만가동시키고있다.

선군압축기직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김성일, 원건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압축기본체와 실린더, 피스톤을 비롯한 부분품가공을 짜고들고 조립속도를 높여 조상기용 압축기생산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곳 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종전의 계기함을 없애고 새롭고 간편한 계기함을 불일수 있게 기술을 혁신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압축기를 보다 경량화할수 있게 하였다. 대형, 중형, 소형선반작업반과 보링작업반, 정밀가공작업반, 조립1, 2작업반 로동자들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련대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질좋은 압축기들을 완성하는족족 건설장으로 떠나보내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제판1, 2직장과 대형공작기계직장, 1기계직장, 4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량이 많고 육중한 여러가지 종류의 수문바퀴가공과 조립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벼모판씨뿌리기 마감단계
평안북도의 협동농장들에서

경애하는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선진적인 이른큰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많은 면적에 선진적인 이른큰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양알모와 단지모재배방법을 나머지면적에 받아들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청년분조조전에서 시, 군책임일군들을 위한 이른큰모재배 벼모판씨뿌리기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이른큰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른큰모재배를 위한 벼모판씨뿌리기에서는 선천군 석화협동농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특히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른큰모를 재배할 전면적에 해당한 벼모판씨뿌리기를 전부 끝냈다. 농장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많은 면적에 선진적인 이른큰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양알모와 단지모재배방법을 나머지면적에 받아들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청년분조조전에서 시, 군책임일군들을 위한 이른큰모재배 벼모판씨뿌리기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이른큰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른큰모재배를 위한 벼모판씨뿌리기에서는 선천군 석화협동농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특히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른큰모를 재배할 전면적에 해당한 벼모판씨뿌리기를 전부 끝냈다. 농장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씨뿌리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날씨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벼모판씨뿌리기를 알심있게 하고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이른큰모를 전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를 내세우고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불과 4일동안에 벼모판씨뿌리기를 끝낸 기세드높이 모판관리를 짜고들면서 뒤그루면적에 영양알모를 내기 위한 모판씨뿌리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지난해농사를 잘 지은 룡천군의 협동농장들과 정주시와 신의주시, 철산군과 염주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른큰모를 낼 기본면적에 해당한 벼모판씨뿌리기를 전부 끝낸데 이어 앞그루를 수확한 나머지면적에 내게 될 벼모판씨뿌리기를 다그쳐 며칠안에 끝낼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운천군과 박천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른큰모재배를 위한 모판씨뿌리기를 끝낸데 이어 나머지모판씨뿌리기를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논갈이와 마른써레치기를 동시에 내민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갈이와 마른써레치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농촌들에서 물절약형토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토양의 특성과 논이 마른 상태에서 갈이와 써레치기를 따라세워 땅속수분증발을 줄이는 문제가 강조되였다. 그리고 앞으로 비가 오면 축적되는 수분으로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기계화수단들을 리용하여 논갈이와 마른써레치기를 동시에 적극 내밀고있다.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 경지,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특히 연안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지금 논갈이와 마른써레치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봉천군을 비롯하여 부림소를 많이 기르고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논갈이와 써레치기에 뜨락또르와 함께 부림소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일군들의 전투적인 작전과 일본새, 대중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도의 전반적인 농촌들에서 논갈이와 마른써레치기의 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오르고있다.

농장원대중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도의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에 나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논밭갈이파정에 무딘 보습날을 제때에 벼리여 깊이갈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연유소비를 줄이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일념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국산화는 곧 사회주의조국수호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지금 온 나라에는 국산화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날마다 전해지고있는 국산화성과들은 민족자주사상의 성공탑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온 세계에 빛내이려는 천만군민의 드높은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1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될수록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부강조국건설의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경제정책이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 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비법한 선견지명으로 부강조국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립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신분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직후와 전후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영원한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며 허리띠를 조이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하나하나 축성해나가는 험난한 생눈길을 선택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대고조진군속에서 우리는 수입품이 아니라 자체로 생산한 소비품으로 인민생활도 높였고 쎄브에 들지 않았어도 자기의 지혜와 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경제장성속도를 이룩하며 강력한 사회주의자립경제를 일떠세웠다. 우리의 자립경제건설방식과 경험은 부흥강국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으며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본보기로 되여왔다.

우리 인민이 새 조국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세기도 바뀌고 시대적환경도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21세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이 땅우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오늘 수입병을 없애고 생산과 건설을 국산화, 주체화하는것은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입병을 없애는것도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현시기 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명맥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선군조선이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이며 자위적국방력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그것은 제국주의반동들의 공세가 집중된 지난 20여년간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열백번도 더 확증되였다.

우리의 긍지이고 힘인 자립적민족경제를 앞으로도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면 국산화의 원칙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선군조선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오늘 제일 경계해야 할것은 수입의존경향이다. 어느때에나 그러하였지만 수입병은 온갖 적대세력들이 악착하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 현시기 매우 해로운 사상독소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는 한편 저들의 잉여상품, 질낮은 제품들을 들이밀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 자립경제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리속을 채우며 우리를 경제적으로 목조르기하려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군사적침략에 못지 않은 극악한 경제적침략이며 횡포한 민족말살책동이다. 원쑤들의 흉심을 가려보는 사람에게는 설비와 원료, 자재들을 자체로 만들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쉽게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고만 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정책에 편승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이며 자주적운명개척의 만년재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우월성과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빈터와 재더미우에서도 수입병을 배격하고 창조와 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인 그 기상, 그 슬기는 영원히 살아있다. 오늘의 국산화투쟁에서 사회주의자립경제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나가려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현시기 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우리의 사상진지를 수호하기 위한 첨예한 사상전이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상진지의 공고성에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달려있다. 국산화비중을 높이는것은 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입병이 초래하는 엄중한 해독적후과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명맥을 끊어버릴뿐아니라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생활령역에 다른 나라 물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쓰는데 버릇되게 되면 자기의 경제적잠재력에 대해 믿지 못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이 싹트게 되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허물어질수 있다. 멀쩡한 사람을 눈앞에 있는 자기의 좋은것도 볼줄 모르고 자기의것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청맹과니, 머저리로 만드는것이 바로 사대주의병, 수입병이다. 우리는 서방의것을 무턱대고 숭배하고 수입품을 쓰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였던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밀수입과 암거래, 빈부격차의 심화, 이색적인 부르죠아생활양식의 류포 등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성행하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입병은 사회주의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을 못쓰게 만드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하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보고 듣고 쓰는것 하나하나가 그들의 세계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공백이 있을수 없는것만큼 청소년학생들이 어릴적부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학용품을 쓰고 옷을 입으면 백지장같은 의식속에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사상이 뿌리내릴수 있다. 후대들을 민족적자존심도 없고 선렬들의 피땀이 어린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도 쉽게 저버리는 얼치기인간으로 키우는것처럼 더 무책임한 일은 없을것이다.

사람들이 나쁜 사상에 물젖기는 쉽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는 몇곱절 힘들고 어렵다. 우리 당은 수백, 수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유해로운 사상의 구속에서 우리 인민을 해방시키고 자기 운명의 주인, 사회주의의 주인으로 키워냈다. 경제생활이 어려울 때 생긴 사상의식의 변화라고 하여 경제형편이 좋아지면 저절로 개변되리라고 보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회주의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자면 불건전한 사상이 발붙이고 싹틀수 있는 온상을 애초에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것을 먹고 입고 쓰면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현시기 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계의 앞자리에 내세우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이다.

조국수호는 결코 피동적인 방어로 되여서는 안된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최고의 방략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되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때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영원한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와 군사, 문화분야에서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것들이 많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물질문화생활만 마련해주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인민생활문제에서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해결되는것이 없으며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배만 불리워주게 된다. 인민생활향상문제를 혁명적으로 풀기 위한 근본방도와 지름길은 바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공장과 기업소들, 협동벌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데 있다. 오늘 국산화를 실현하는 사업은 단숨에의 공격정신, 돌격속도를 구현한 우리 당의 웅대한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당에서 정한 기일내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창조와 변혁투쟁을 힘있게 내밀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생산토대가 있어야 한다.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국산화비중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속에서 나라의 전반적국력도 공고히 다질수 있고 21세기 지식경제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다.

우리 조국을 세계의 앞자리에 내세운다는것은 결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다. 우리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것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만든 진짜 우리의것으로 될 때, 우리 조국의 모든것이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빛을 뿌릴 때 우리 당이 제시한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이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국산화실현은 단순히 외화 몇푼을 절약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 후대들의 미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사업은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결전의 시기에 생명을 바쳐 전선을 지켜내는것에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이 이 투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수입의존도를 결정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방향과 방도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국산화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우리자신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수입병을 없애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사상전의 제1차적인 타격대상은 수입하지 않으면 당장 현행생산과 건설도 할수 없고 현대화도 어렵다는 패배주의적관점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고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자기에게 있는것을 가지고 살아나가겠다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해나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최근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철도건설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성능이 높고 값눅은 콩크리트급결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부문 일군들, 현장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급결제생산공정을 꾸림으로써 건설에서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이바지한것은 이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이 만능의 《방패》로 내세우는것이 자체로 만들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근시안적타산이다. 우리가 자체로 만들면 처음에는 원가가 많이 들수 있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면 수입해 쓰는것보다 백배, 천배로 유익하다. 더우기 제국주의반동들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산화에서의 성과는 순수 돈으로만 따질수 없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계산법이 있었기에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수 있었고 주체철이 나오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하늘높이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우리 조국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질적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생산과 건설에서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생산물과 건설물이 실제로 자본주의나라들의것보다 더 좋아야 수입병을 완전히 뿌리뽑을수 있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가 생활에 바탕을 둔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생산과 건설에서 계획수행과 속도만을 생각하며 제정된 기술공정과 공법을 어기거나 제품의 질을 소홀히 하고 량적장성에만 치우치는 편향,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질적요구가 보장되지 못한 대용품을 써서 제품의 질을 떨구는것과 같은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신념화한 사람들에게는 수입병이 절대로 침습할수 없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하시고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사는 이 땅에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제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기풍이 꽉 차넘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국내산으로 쓸수 있는것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현상들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의거하여 국산화실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자주 일군들에게 깨우쳐주시는 가르치심이 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때문에 현대화목표를 설정해주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낸다고 하신 이 말씀은 국산화실현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과학전선의 모든 전초병들은 국제시장에서 주체조선의것이 판을 치게 하겠다는 높은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천리마타일공장과 천지윤활유공장에서처럼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수입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구사업을 현행생산과제이상으로 중시하고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주며 그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는 꿋들에서는 례외없이 변혁이 일어난다.

최고품질, 최저가격, 제품의 다양화는 국산화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혁신과제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원료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 제품들보다 가격이 눅으면서도 품질이 담보되는 여러가지 용도의 질좋은 제품들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여 우리 사람들이 국내산제품을 즐겨 찾게 만들어야 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래일에 가서는 오늘이 아득한 과거로 되는 지식경제시대의 상상봉은 이룩한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공격형의 인재들의것이다.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던 피부천연보습제를 자체의 힘으로 개발도입한데 이어 또다시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생산에 쓰이는 원료들을 국산화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불같은 창조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항상 시대적추세에 민감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드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무엇을 하나 받아들여도 세계적인것을 받아들여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을수 있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은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관심속에서 대중적운동으로 벌려야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은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의 민족적자존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국산화실현에 기여할수 있다.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자기 단위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로 더 많이 키워내라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매 부문들마다 국산화실현의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모든 단위들이 그를 따라앞서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교류도 활발해지고있다.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한 사람은 외국출장길에 무엇을 하나 보아도 조국의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없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무심히 대하지 않으며 한가지라도 가치있는것을 보고 배워오는데 몰두하는 법이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일군들의 실례가 그러하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다그치자면 이 사업에 대한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의 지도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시대적사명감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당면한 수지와 일시적인 리익만을 타산할것이 아니라 전망적인 리익을 따져가며 옳바른 국산화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착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가운데는 다른 나라의것보다 나은것이 적지 않으며 질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늘이면 수입하지 않고 국산화할수 있는 제품들도 많다. 남의것을 사오려면 자금을 이미 꾸려놓은 우리의 생산기지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돌린다면 그 경제적효과성은 비할바없이 클것이다. 제기되는 수입문제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 자재를 최대한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던것을 자력갱생하여 국내생산으로 보장할 때에는 평가를 잘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날과 달들은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수놓아지고있다.

명실공히 우리의것, 시대적본보기라고 말할수 있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훌륭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이러한 눈부신 기적들이 계속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수많은 현대적생산기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애국공장,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들이다. 여기저기에서 우리 나라의 상표를 단 여러가지 훌륭한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도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오늘의 국산화투쟁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자랑스러운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의 빛나는 계승이며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이다. 세계적인 우리의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창조되게 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우리 대에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모두다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빛나게 하자.

승리는 영원히 자력갱생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것이다.

채 철 룡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33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1(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의 정화이며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련하신 가장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혁명학설이라는데 주체사상의 거대한 견인력과 생명력이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주체사상을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주체의 신념이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승리와 변혁의 서사시를 수놓아올수 있었다.

우리 조국이 높은 국제적권위와 존엄을 지니고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주체사상과 그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떨치고 후손만대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켜오신 주체사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도 승리와 번영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을 자주적대가 투철한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게 하는 혁명적기치이다.

우리 인민이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가장 철저한 자주의 리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생명선으로 삼고 그 기치밑에 싸워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라는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복잡다단한 정세와 엄혹한 시련속에서 자주적대를 끌까지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참으로 간고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민족적존엄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며 사생결단하여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나 군사적압력도 절대로 통할수 없었다.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과 인민이 세계정치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철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사상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해나가는 길은 오직 선군의 길밖에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지 투쟁을 통하여 체득한 철리이다. 세계는 자기가 선택한 길, 절대불변의 진로인 주체의 한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이 이제 어떻게 무섭게 솟구치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의 힘, 우리의것으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번영의 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우리 식, 우리 힘으로 불패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우리 식에는 주체사상이 빛발치고 민족자주정신이 깃들어있으며 우리에게 주체식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당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차넘친것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우리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자력, 자강의 정신력이였다. 우리가 만약 어렵다고 주체의 항로에서 탈선하여 남을 쳐다보며 살았다면 시련의 고비들에서 영영 주저앉고말았을것이다. 주체사상을 변함없는 신조로 삼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발휘해왔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서기 위한 우리 식의 최첨단돌파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치렬하게 벌어지는 국력경쟁에서 기어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는 만만한 투지와 담대한 배짱, 이것이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투쟁기풍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는 자양분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것이 사회주의의 근본리념이고 원칙이다. 사회주의본태를 굳건히 고수해나가는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심각한 사상적대결을 동반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비렬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교활하고 음흉한 반동적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도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되여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의 대오로 굳게 뭉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집단주의적생명관과 고결한 인생관에 기초하여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그 어디서나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건전한 기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주체사상의 숭고한 리념이 살아맥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생기와 활력을 절대로 잃지 않고 자기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승승장구할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리 강 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혁명사적일군의 긍지를 안고

청수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를 안고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청수혁명사적지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사적관내부를 다시 깨끗하게 꾸린 다음 안내문들도 새롭게 만들어붙이였다.

이와 함께 사적건물들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받으며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끝냈다.

그들은 뜨거운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사적관주변에 황목련, 전나무를 비롯한 6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키나무들과 300여그루의 꽃떨기나무들도 새로 심고 생땅이 드러난 곳에는 비비추도 심었다.

한편 강사들은 지난해에 이동강의를 많이 진행한 경험을 살려 대상의 특성에 맞는 해설강의안도 다시 작성하면서 지체와 정열을 쏟아붓고있다.

그들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무추동하기 위한 이동강의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모든 곡식을 적기에 질적으로 심자

면밀히 짜고든 이른큰모판씨뿌리기작전

곽 산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곽산군에서 많은 논면적에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일 목표를 제기하고 10일동안에 씨뿌리기를 성과적으로 해내여 올해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다. 이 성과는 군일군들이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른큰모재배면적을 늘인데 맞게 씨뿌리기작전을 빈틈없이 한데 있다.

군일군들이 여기서 중시한 문제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해농사의 성과는 씨뿌리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군일군들은 우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이른큰모판씨뿌리기를 10일동안에 해내여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여기서 그들이 중시한것은 지난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모판준비를 잘하도록 한것이였다. 모판자리를 바로 정하고 땅이 빨리 녹도록 한것이 그 실례이다.

이른큰모판씨뿌리기를 적기에 하자면 지난 시기보다 15일이상 앞당겨 시작해야 하였다. 그런데 땅이 녹아야 씨뿌리기를 할수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지난해 적지 않은 면적의 논에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 그전보다 논벼 정보당 평균 1t, 최고 2t 증수한 로하협동농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판자리를 정한 다음 언땅을 녹이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해가 잘 비치고 지력이 높은 포전에 모판자리를 정하고 2월말, 3월초에 바람막이비자를 친데 이어 땅이 녹도록 비닐박막을 씌웠다. 그리고 저녁에는 비닐박막우에 나래를 덮어 낮에 녹았던 땅이 얼지 않도록 하였다. 결과 땅이 빨리 녹아 씨뿌리기를 적기에 할수 있었다.

이 농장의 경험은 언땅을 녹이기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이른큰모를 안전하게 키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군일군들은 즉시 모든 농장들에서 물웅천이 있고 지력이 높으며 해가 잘 비쳐드는 곳에 모판자리를 정하고 얼어붙은 땅을 녹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들마다 모판자리를 실정에 맞게 정하고 땅을 녹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결과 씨뿌리기를 적기에 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군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모든 농장들에서 모판재료를 기술적요구대로 준비하도록 한것이다. 이때 부식토비률을 높여 모판의 온도를 보장한 사실을 보자. 지난해 이른큰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농장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씨뿌리기를 3월 10일경부터 시작하는 조건에서 중요한것은 모판의 온도보장문제였다. 즉 씨앗과 어린 모들이 랭해를 받지 않게 하는것이였다. 그래야 모를 실하게 키워낼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기온이 평균 1～1.2℃ 낮은 조건에서 결정적으로 씨앗과 어린 모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차단재료를 지난 시기보다 더 깔면 될것이라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씨뿌리기를 2～3일 늦게 시작하자는 일군들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면 방도가 생기기마련이다. 제기된 문제를 놓고 분석하면서 토론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모판재료들을 섞을 때 부식토를 지난해보다 많이 넣으면 랭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부식토는 지력은 물론 이른봄 모판의 온도를 높여주어 농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분해될 때 열을 낼뿐아니라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여 땅온도를 높여준다. 따라서 모판재료의 부식토비률을 높이면 얼마든지 벼모를 안전하게 키워낼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일군들은 한개 모판에 필요되는 재료를 만들 때 지난 시기보다 부식토를 수십kg 더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들에서 부식토의 효능이 더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군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또한 씨뿌리기를 한 후 모판의 온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여 실한 싹이 나올수있게 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이른큰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농장들의 경우를 보면 모판에 씨를 뿌린 후 비닐박막을 어떻게 씌웠는가에 따라 벼모의 생육상태가 달랐다. 즉 모판에 씌운 비닐박막의 높이에 따라 모의 생육에서 일정한 차이가 생기였다. 가을의 결실 역시 모를 어떻게 키워냈는가에 따라 정보당 수확고가 결정되였다. 올해에도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수 없었다. 특히 올해는 3월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은 조건에서 비닐박막의 높이를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또다시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비닐박막을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이 씌우고 해가 질 무렵에는 나래를 덮으면 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 모판의 온도를 높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롄호, 초장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농장들에서 모판에 씨를 뿌리고 비닐박막을 지난 시기보다 높이 씌웠다. 결과 군적으로 씨뿌리기를 10일 동안에 결속하였을뿐아니라 모판들에 온도가 기술적요구대로 보장되여 실한 싹이 나왔다.

지금 군일군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하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한것이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물거름탕크문제를 중시한 까닭

송 림 시 서 송 협 동 농 장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송림시 서송협동농장에 가면 강냉이모판자리마다 생겨난 물거름탕크들을 볼수 있다. 이 물거름탕크들은 강냉이모를 키울 때 리용하기 위한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이 강냉이농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는가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성형모에 의한 강냉이영양단지재배방법을 전체 강냉이밭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를 세운 농장일군들은 물거름탕크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내밀었다. 까닭이 무엇인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농장일군들은 지난 시기 이 재배방법을 도입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잎색이 진한 모를 옮겨심은 포전에서의 정보당 강냉이수확고가 그렇지 못한 곳에서보다 평균 1t, 최고 1.5t정도 더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것은 모판단계에서의 잎색이자 정보당 수확고라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결코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였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간 일군들은 모판관리정형을 알아보았다. 유기질비료주기와 온습도보장, 바람쏘이기를 비롯하여 모판관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물거름을 준 량은 서로 달랐다. 사실 모를 포전에 옮겨심을 때까지 물거름을 생산현장에서부터 계속 날라다 리용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문제는 모판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의 책임성에 달려있었다. 대체로 물거름을 모잎이 1.5매정도 나온 때부터 2일간격으로 준 모판에서는 잎색이 진하면서도 튼튼한 모가 자라 포전으로 나갔다. 이런 모판들에는 례외없이 가까이에 50～100L의 물거름을 채워넣고 보관리용할수 있는 물거름탕크가 있었다.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정보당 강냉이수확고를 높이자면 모든 농장원들이 모판가까이에 물거름탕크를 만드는것이 중요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올해의 강냉이농사에서 다수확을 거둘수 있는 또 하나의 방도를 여기서 찾아쥐고 물거름탕크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갔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가정들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비닐통, 독, 비닐자루 등을 리용하도록 하였다. 큰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 사업은 짧은 기간에 물거름탕크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물거름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운것도 긍정할만 한것이다.

일군들은 모판가까이에 탕크를 만들어 놓고 물거름이 생산되는족족 채워넣게 하였다. 이때 뚜껑을 반드시 덮어놓도록 하였다. 그래야 질이 담보된 물거름으로 모를 튼튼히 자래울수 있기때문이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튼튼한 모를 기르자면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올해에는 모든 농장원들이 마지막 모가 나갈 때까지 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모든 모판마다 물거름탕크들이 생겨난 결과 뜻깊은 올해 정보당 강냉이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김 성 일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긴 싹모에 의한 앞그루감자농사방법

녕 원 군 마 산 협 동 농 장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가지 영농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있는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것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견지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파고드는 습관을 가지면 평범한 것에서 큰것을 발견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녕원군 마산협동농장에서 알곡 대 감자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여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인 경험이 교훈적이다. 그것이 바로 랭온상처리에 의한 긴 싹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50여t의 앞그루감자를 생산한것이다.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앞그루감자농사에서 비약을 일으키자. 이렇게 결심하고 앞선 영농방법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농장 과수작업반기술원은 감자의 누운가지수를 늘이는데 증산의 열쇠가 있다는 묘방을 찾아쥐게 되였다.

그는 감자의 누운가지수는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확신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감자의 생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탐구와 실천의 해와 달을 이어갔다. 대흥단식과학농법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는 수확고를 높이는 비결의 하나가 감자모를 옮긴 후 북주기를 여러회 진행하는데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리고 싹이 자라면서 줄기에 생기는 마디들이 흙에 묻히면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지만 반대로 땅우에 드러나면 잎줄기가 뻗는다는것, 그래서 북주기에서 기본은 마디들을 묻어주는것이며 그래야 감자알이 많이 달린다는 원리도 파악하게 되였다.

열정은 사색을 동반하고 사색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힘을 낳게 하였다.

그는 마디마다에 뿌리가 내린 긴 싹모를 키워 밭에 내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실천하였다. 먼저 한알이 30g이 되는 감자를 종자로 선택하였다. 그보다 작으면 모가 실하게 자라지 못하고 크면 그만큼 랑비로 되였다. 이미 나온 싹은 연약하기때문에 싹틔우기를 진행하여 새로 돋는 싹을 리용하였다. 다음으로 부식토와 흙을 7:3의 비률로 섞어 깐 모판에 싹튼 감자종자를 한벌 폈다. 그리고 복토를 하고 수분을 80%로 보장한 다음 박막을 씌웠다. 열흘이 지나 싹이 돋으면 그것을 다시 묻어주고 물을 충분히 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한번 묻어주기를 한 후 열흘이 지나 싹모가 한뼘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종자채로 파서 흙을 털어내고 밭에 심었다. 이렇게 하니 싹모단계에서 마디수는 7.5개, 마디뿌리수는 15개가 되였다. 그러자 농장일군들의 관심은 물론 농장원들의 호기심이 더욱 높아졌다. 모두가 그의 일손을 적극 도와 감자모심기준비를 서둘렀다.

4월초에 밭이랑을 만들고 여러개의 싹모가 자란 감자종자들을 묻을수 있게 골을 깊숙이 팬 다음 거기에 수십t의 유기질비료를 넣었다. 그리고 그우에 물거름을 뿌리고 재를 편 다음 평당 16～18포기 되도록 싹모를 이랑방향으로 빗선되게 눕혀놓고 보이지 않게 묻었다. 나흘만에 싹나기가 진행되였고 감자가 달리는 누운가지수는 4배이상 많아졌으며 포기당 잎줄기수는 1.5대로 줄어들었다. 결과 종전보다 60～70%의 종자를 리용하여 포기당 알수는 3배, 알당 질량은 1.4배, 정보당 수확고는 3배이상 높이였다.

이 재배방법은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도 크게 은을 냈다. 그것은 감자의 잎줄기가 무성하지 않은 반면에 매 마디마다에 뿌리가 내려 가물에 견디는 힘이 강해졌기때문이다.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그 우월성을 확신하고 올해농사에 떨쳐나 감자모옮겨심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평안남도의 일군들은 긴 싹모에 의한 재배방법을 도안의 모든 앞그루감자포전들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강하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왜 6련보습을 택하였는가

재 령 군 래 림 협 동 농 장 에 서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에서 논밭갈이가 시작된지 보름동안에 100%면적의 포전들을 갈아엎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5배나 되는 높은 실적이다. 비결은 논밭갈이에 6련보습을 적극 리용한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때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봄철에는 가물현상이 세게 나타난다. 이 시기 어떤 때에는 하루동안에 1cm깊이까지의 흙이 마른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뜻깊은 올해 농사를 잘 짓자면 땅다루기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점밑에 일군들은 전면적에 마른써레치기, 이랑짓기를 적극 받아들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래야 토양구조를 좋게 하고 실판현상에 의한 토양물기날기를 막아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마른써레치기와 이랑짓기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논밭갈이실적을 올리는것이 선차적인 사업이다. 사실 농장의 조건에서는 20여일동안에 논밭갈이를 끝내기가 어려웠다. 일군들은 그 해결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갈이보습날을 6개로 정할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짧은 기간에 6련보습이 만들어지게 되였다.

보습날이 6개로 되여있는 새형의 갈이보습은 얼핏 보면 종전의 3련보습과 비슷하지만 제작상 다른 점이 있다. 새 보습날의 구조는 크게 앞날, 밑날, 코날로 되여있는데 보습날의 두께가 좀 얇고 흰 각도도 차이가 있다. 또한 보습날사이거리가 좁다.

새형의 갈이보습으로 논밭갈이를 하면 우선 논밭갈이능력을 높일수 있다. 그것은 새형의 보습이 논밭을 갈 때 송곳같이 뾰족한 앞부분의 코날로 굳은 땅을 쉽게 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논밭갈이에 드는 기름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 3련보습보다 갈이폭이 더 넓기때문에 논밭갈이를 질적으로 할수 있다. 발목에 맨 바줄로 통나무를 끌 때보다 허리에 매고 끌 때에는 드는 힘이 훨씬 감소된다.

이 원리를 리용하여 뜨락또르 련결부위에서 15cm정도 웃쪽에 갈이보습체를 련결함으로써 마력수가 높지 않은 뜨락또르로도 얼마든지 끌수 있었다.

6련보습은 뜨락또르운전수들 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종전에는 논밭갈이할 때 뜨락또르의 한바퀴는 생땅에, 다른 한바퀴는 갈이한 땅에 붙인 상태에서 운전하다나니 안전하지 못하고 작업능률도 낮았으며 생땅도 생겼다. 그러나 이 갈이보습은 뜨락또르체보다 넓어 뜨락또르가 항상 생땅우를 달리며 갈이를 하게 함으로써 작업이 안전하고 질과 속도를 높여주었다.

처음으로 땅다루기가 끝난 포전의 겉흙은 말랐지만 1cm정도 깊이의 흙은 푹 젖어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토양의 물기함량이 많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이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땅다루기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얼마나 뛰고 또 뛰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청년사업에 대한 참신한 당적지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함 경 남 도 당 위 원 회 사 업 에 서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도당위원회의 당적지도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이 사업을 주관부서에만 맡겨둔것이 아니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내밀것이라고 볼수 있다.

도당위원회는 우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작전을 잘 짜고들었다.

도당책임일군들은 해당 부서가 작성한 년간 청년사업협동작전계획을 깐깐히 검토하고 이것을 부서들의 월사업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을 앞세웠다.

도당위원회는 5대교양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작전안을 치밀하게 세웠다. 도안의 각급 학교, 기관, 기업소청년동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직관판을 만들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도록 당적으로 밀어주는 문제, 청년동맹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개별분담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일군들이 직접 청년들속에 들어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교양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반영되였다.

특히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올해 2월 조직부 책임지도원, 선전선동부 담당지도원들의 지도사업요강에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양을 중요한 항목으로 밝히도록 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이러한 치밀한 작전에 기초하여 도당위원회는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도안의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는것,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도당위원회가 변함없이 틀어쥔 청년동맹사업지도의 총적방향이다.

도당위원회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도안의 청년들속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실속있게 밀고나갔다.

위험한 순간에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신흥군 인풍중학교(당시) 한현경학생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모든 청소년들이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잘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도적으로 백수십명의 청소년들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이 창조된데 이어 올해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을 보여주었다.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도당책임일군들부터가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수십명의 인민군대 초모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당책임일군은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이라는 진리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사실자료들을 통해 감명깊이 들려주며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되여 돌아올것을 호소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모범을 모든 당일군들이 따랐다. 도당위원회는 물론 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인민군대초모생들을 만나 힘과 용기를 주고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당일군들의 참신한 교양사업은 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속에서 애국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흥원군 영웅흥원고급중학교, 정평군 영웅정평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도안의 많은 학교들에서 수백명의 졸업반학생들이 최전연초소로 집단탄원하였다.

도당위원회는 청년들에게 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기고 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김정일애국주의의 철저한 체현자, 구현자들로 키워나가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도당책임일군의 발기에 따라 조직된 500여명의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금야청년탄광으로 달려나가 석탄생산에서 청년전위의 본때를 보이고있는 사실, 도안의 청소년학생들이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큰 성과를 이룩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선군청년전위의 대부대를 억세게 키울수 있다는것을 이곳 도당위원회사업은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청년영웅, 위훈의 창조자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강철같은 청년집단!

이것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년들에 대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그 비결을 우리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사업을 통해 찾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선봉대, 돌격대가 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선 청년들이 자기 일터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청년들을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키워 기술혁명수행에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해나가도록 한 사실을 보자.

기술자, 기능공양성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련합기업소당책임일군인 박창범동무는 이 사업을 청년들을 실력전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단위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야 할 청년들이 응당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그는 이 사업에 큰 품을 들였다. 현장에서 배우려는 열의가 높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시켰다. 뿐만아니라 4.15기술혁신돌격대활동에도 적극 인입시켜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을 이어받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청년들은 생산과 기술혁명수행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주인들로 자라났다.

타빈직장의 원길웅, 열생산1직장의 리영진, 강운식, 전기보수직장의 박충성, 전기직장 박광호동무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구현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기 시작한것이다.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을 믿고 대담하게 맡겨주어 그들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게 하였다.

차광수청년돌격대의 활동이 좋은 실례로 된다.

지난 1월 긴급하게 석탄하차작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당책임일군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그때 청년돌격대가 맡고있는 과제도 많았던것이다. 보이라대보수를 위한 연재처리, 저탄장의 석탄운반, 강뿔넣기작업…

당책임일군은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강철은 용광로속에서 단련된다. 어렵고 힘든 전투를 통해 청년들을 영웅감으로, 청년돌격대를 쇠소리나는 강철집단으로 벼려내야 한다.)

이런 결심밑에 당책임일군은 차광수청년돌격대에 또다시 새로운 전투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석탄하차작업의 맨 앞장에 섰다.

그뒤를 따라 청년돌격대원들과 기업소의 청년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 당조직의 믿음은 기적을 낳았다.

청년돌격대원들과 련합기업소의 청년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 백열전을 벌려 석탄하차작업을 단 두시간동안에 끝냈던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많다.

이곳 당위원회사업은 청년들을 대담하게 믿고 벅찬 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시킬 때 그들모두를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 위훈의 창조자로 억세게 키울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무한대한 힘의 원천—사랑과 정

송 남 청 년 탄 광 초 급 당 위 원 회 에 서

송남청년탄광에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는 청년혁신자들이 있다.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다.

무엇이 그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청년들에 대한 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청년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그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아픈 상처를 감싸안아주는 어머니처럼 그들의 마음속고충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초급당비서 김승진동무가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지금껏 아껴오던 명당자리에 돌격대병실을 새로 번듯하게 지어주자고 하였을 때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동안 이곳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에게 참으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쏟아부어왔었다.

초급당비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집터밭에 갖가지 남새를 심고 돌격대원들의 식탁에 한가지라도 더 올려놓기 위해 마음을 썼다. 그의 안해가 가정에서 돌격대몫으로 점찍어놓고 기른 집짐승을 몰고 병실마당에 들어설 때면 돌격대원들은 고향집어머니를 보는것같아 눈물을 흘리군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적어두었다가 생일상을 차려주었고 매해 솜옷과 내의, 신발도 보장해주었다. 어느 사이에 돌격대원들은 탄광에 정이 푹 들고 돌격대를 정다운 고향집처럼 여기게 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광에서 요긴한 때 쓰려고 아껴오던 자리에 돌격대병실을 짓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아쉬워하는 일군들에게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난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어떤 청년들입니까. 우리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할 마음안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동무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병실을 지어줄바에는 제일 좋은 자리에 멋들어지게 지어줍시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에는 모든 생활조건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병실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탄광에서 리용해오던 염소방목지와 여러 정보의 부업지도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부모가 없는 청년들의 생활도 친부모된 심정으로 돌보아주었다.

이렇게 되니 불과 몇해사이에 대렬이 부쩍 늘어나게 되였다. 초기에는 10여명밖에 안되였던 돌격대가 이제는 근 100명으로 늘어난것이다.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진청년돌격대 대장 김동철동무가 돌격대의 첫 당원이 되였다.

돌격대가 조직될 초기에는 누구도 이들이 탄광을 떠메고나갈 대들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돌격대를 위해 바쳐진 이곳 일군들의 뜨거운 정이야말로 청년들을 위훈의 창조자로 만든 힘의 원천, 밀거름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손 영 희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는다

우승의 비결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 있다

강 원 도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강원도가 대중체육열기로 들끓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높은 성적을 거둔데 이어 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도 순위권에 든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체육사업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도의 체육사업에서 한해사이에 이렇듯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은 비결은 무엇인가.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도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한데 있다.

두해전에 진행된 전국도대항 체육경기에서 도가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실태를 놓고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 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심장으로 새기지 못하고 선수본위의 낡은 방식에 매달린 결과였다.

세대교체와 순환이 그 어느 부문보다 빠른 체육부문에서는 선수후비육성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이렇게 자기들의 사업을 분석총화한 도일군들은 지난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준비하면서 선수선발을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실천에서 검증된 우수한 새 선수를 선발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자신의 사업이다. 대중체육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선수후비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잘 키우자.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런 목적으로부터 도급단위들과 시, 군별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결국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체육경기참가의욕이 높아지고 대중체육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누구나 경기대회에 참가할수 있다는 신심도 더욱 높아졌다.

대중의 비상히 앙양된 체육열의에 맞게 도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에서 앞장선 단위들과 선수들을 평가하고 적극 내세우는 한편 체육기자재들과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 과정에 젊고 전도양양한 새로운 선수후비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였다.

또한 한두종목의 경기만이 아니라 배구, 롱구, 탁구 등 여러 종목을 다같이 승산종목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는 지난 기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여 강원도선수들은 많은 종목에서 준결승단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한 일군들은 도의 모든 단위들에서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물론 동, 인민반들에서도 대중체육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더욱 높아져 일터마다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할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인재후비양성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학교체육사업을 개선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체육시설을 보다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그리고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게 체육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체육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지난 시기 체육부문에서만 진행되던 체육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참가하여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군들은 여러 계기들과 체육소개판을 통하여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과학기술이 경기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체육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상들중에는 도의 일군과 평범한 로동자들도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한없는 격동속에 받아안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중체육열의는 지금 대단히 높다.

거리와 마을, 일터 그 어디서나 세차게 몰아치는 대중체육열풍속에 체육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도의 체육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 천 일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체육열기를 고조시키자면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자강도에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황 해 북 도 에 서

황해북도에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체육분위기를 세우는 사업과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러 체육단선수들이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에서는 체육의 날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으며 체육소개판을 통하여 체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례성강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선수들과 감독들속에 들어가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에 충분한 훈련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자강도에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황 해 북 도 에 서

황해북도에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체육분위기를 세우는 사업과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러 체육단선수들이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에서는 체육의 날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으며 체육소개판을 통하여 체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례성강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선수들과 감독들속에 들어가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에 충분한 훈련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국내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 함충렬선수가 있는가 하면 국내국제경기들에서 여러차례 우승한것으로 하여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받은 선수만 하여도 3명이나 된다.

6단태권도국제사범자격을 가지고있는 문종석동무는 태권도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선진적인 훈련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훈련조건개선에도 큰 품을 들여 훈련성과가 경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나약한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부모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밤길도 많이 걸었고 훈련기재를 마련하기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20여년간 태권도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바쳐온 문종석동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는 태권도열풍이 세차게 일고 교원, 학생들속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태권도소조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동작에 능하고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의지를 지니게 되였으며 학교는 온 나라에 태권도학교로 소문이 났다.

문종석동무는 태권도모국인 우리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영원히 태권도패권을 쥔 강국으로 빛내이는 길에 밑거름이 될 자신의 불타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보아주신 그 영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문종석동무는 오늘도 태권도선수후비육성사업에 자신의 힘과 지혜,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가고있다. 그의 제자들도 스승처럼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변함없이 떨쳐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특파기자

자 강 도 에 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데 맞게 자강도에서 체육시설들을 더 잘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장자강반에 배구장, 롱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이 꾸려져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장자강인민유원지가 일떠섰다.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인 인풍원에는 현대적인 수영관이 꾸려졌다. 강계시의 북천에 도약대를 갖춘 물놀이장이 생겨나고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들마다에 탁구장, 배구장, 롱구장들이 새로 꾸려졌다.

도의 일군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훌륭한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장자강과 북천이 합수되는 강계시의 경치좋은 곳에 현대적인 도체육관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실내축구, 롱구, 배구와 집단체조도 할수 있는 도체육관이 건설되면 대중체육활동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도에서는 강계제1사범대학 체육단의 여러 건물과 훈련관을 완공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경치좋은 곳에 체육인숙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준비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훌륭한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산간오지군인 랑림군과 중강군에서는 체육관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으며 동신군에서는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성간, 전천, 자성군들에서는 체육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민족씨름을 잘하여 소문난 고장

룡 천 군 신 암 협 동 농 장 을 찾 아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과 들에 봄빛이 짙어가고있는 얼마전 우리는 전국적인 민족씨름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쳐 온 나라에 소문을 내고있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찾았다.

관리위원장 김영순동무가 우리에게 감동깊은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우리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민족음악과 민족체육을 장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농장에서는 민족체육인 씨름을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농장에서 일하던 리정철동무가 제10차 인민체육대회에서 1등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한 몸무게급 씨름경기에서는 제1작업반 농장원 리학철동무와 제3작업반 농장원 리세혁동무가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고 말하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농장원들모두가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니 그것은 그대로 농업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고 관리위원장은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해마다 진행되는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민족씨름경기에서 우승하여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한 영웅신암고급중학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갈 앞날의 미더운 씨름선수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는 육체훈련도 하고 씨름기술도 련마하며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고있다고 호기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와 더불어 민족씨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의미깊은 말이였다.

우리는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신암협동농장이 농사에서는 물론 민족체육종목인 씨름경기에서도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며 농장을 떠났다.

특파기자

24개의 메달을 받은 그네뛰기선수

혜산시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공 민정남동무

혜산시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공 민정남동무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소식에 혜산시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민정남동무는 단발머리 처녀시절부터 그네뛰기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한 그에게는 일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있다. 대학시절 제6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닌것이다.

그날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체육인들을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은 오늘도 민정남동무의 가슴속에 정히 새겨져있다. 평범한 그네뛰기선수에 불과한 자기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준 당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고저 민정남동무는 그때부터 그네줄을 더더욱 억세게 잡고 놓지 않았다.

대학시절에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때에도, 자진하여 도로관리공이 되였을 때에도 그의 체육열의는 식을줄 몰랐다.

궂은날, 마른날을 가리지 않고 도로관리공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그는 늘 민족체육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있었다.

30여년간 그네뛰기선수로 활약한 그는 인민체육대회와 전국적인 민족체육경기대회들에 참가하여 24개의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천고개를 바라보는 지금도 민정남동무는 명절과 휴식일이면 그네터로 달려가군 한다.

사업소초급직맹일군인 그는 시안의 녀맹원들속에 들어가 그네뛰기선수후비를 찾아내고 그들을 키우는데 품을 들이고있다.

민정남동무는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으로 녀성들을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체육종목인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여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우리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며 태권도기술과 전통적인 씨름기술수법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포시 항구고급중학교에 경사가 났다. 이번에 진행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학교태권도지도교원 문종석동무와 함께 그가 키운 5명의 제자들이 참가하였던것이다. 지난 20여년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그들의 체력을 튼튼히 다져줄 목적에서 태권도소조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태권도훈련실을 잘 꾸려놓고 학생들속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열풍을 일으키는 과정에 학교는 20여차례의 국내태권도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2중모범체육학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중에는 지난해 국내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 함충렬선수가 있는가 하면 국내국제경기들에서 여러차례 우승한것으로 하여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받은 선수만 하여도 3명이나 된다.

6단태권도국제사범자격을 가지고있는 문종석동무는 태권도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선진적인 훈련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훈련조건개선에도 큰 품을 들여 훈련성과가 경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나약한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부모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밤길도 많이 걸었고 훈련기재를 마련하기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20여년간 태권도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바쳐온 문종석동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는 태권도열풍이 세차게 일고 교원, 학생들속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태권도소조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동작에 능하고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의지를 지니게 되였으며 학교는 온 나라에 태권도학교로 소문이 났다.

문종석동무는 태권도모국인 우리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영원히 태권도패권을 쥔 강국으로 빛내이는 길에 밑거름이 될 자신의 불타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보아주신 그 영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문종석동무는 오늘도 태권도선수후비육성사업에 자신의 힘과 지혜,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가고있다. 그의 제자들도 스승처럼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변함없이 떨쳐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특파기자

대회장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들

＊ 남포시 항구고급중학교에서 ＊

말해주리 162개의 금메달이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에서

162개의 금메달, 이것은 성남소학교 탁구소조원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전국적인 체육경기들에서 받은것이다.

그 메달의 주인들속에서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유명한 탁구선수들이 수많이 배출되여 성남소학교는 어제는 물론 오늘도 전국에 소문이 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과외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리며 종목별 전문화체육소조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 학교에서는 1970년대 중반기부터 탁구소조운영을 근기있게 내밀어 전도가 유망한 탁구선수후비들을 수많이 키워 체육단들에 보내주었다.

이 학교에서 처음 탁구를 배운 학생들속에서 220여명의 전문 탁구선수들이 자라났다. 그들속에는 인민체육인들인 김윤미, 김향미선수들과 공훈체육인 위복순동무도 있다. 체육명수 칭호를 받은 선수들만도 30여명이나 된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리분희선수와 지난해에 진행된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정선수도 이 학교출신이다.

금메달과 더불어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그들은 어떻게 이름난 탁구선수로 자라났는가.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체육교원인 김철, 박영수동무들은 수십년동안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나라의 체육선수후비들을 키워왔다. 그들은 해마다 전도유망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탁구선수후비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학생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훈련지도를 과학적으로 해왔다. 다양한 전술체계와 훈련계획을 세우고 쳐넣기 묘리같은 여러가지 동작을 새롭게 착상하고 배워주면서 재능있는 국가선수후비육성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주체75(1986)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분희선수를 키운 학교 체육교원이 유능하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성남소학교에서처럼 학생들에 대한 탁구훈련지도를 잘하여 국가선수후비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온 그 나날에 김철동무는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또한 그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162개의 금메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를 운영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의 선수들과 졸업생들이 국내경기들에서는 물론 국제경기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려가리라는것을.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3년간 동맹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일군들과 동맹원들을 총궐기, 총돌격시켜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며 당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증명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집행하고 인민적시책들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

제9차 VTV－빈 디엔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 제 1 위 쟁 취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9차 VTV－빈 디엔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웰남에서 있은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까자흐스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배구팀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4.25팀 선수들은 경기들에서 백두의 훈련열풍속에 련마하여온 높은 정신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준결승경기에서 까자흐스딴팀을 3:0으로 이긴 우리 팀은 다양한 처넣기와 순간타격 등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웰남 LVPB팀과의 결승경기를 3:1로 결속하였다.

독자의 편지

이런 일군을 자랑하고싶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늘 마음쓰며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는 훌륭한 일군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농장지배인 표인남동무입니다.

그는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자주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집에 들려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군 합니다.

그는 언제인가 한 영예군인이 온천료양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과의 련계밑에 불편없이 집으로 돌아올수 있게 세심히 돌보아주었습니다.

가을철이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에 땔감을 실어다주고 김장용남새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군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영예군인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며 새 가정의 앞날을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예군인이 건강상태가 좋아졌으니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맞춤한 일감도 맡겨주고 자주 찾아와 그가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고무해주었으며 남편을 따라온 영예군인의 안해를 실농군이 되도록 이끌어준 참으로 고마운 일군입니다.

이런 훌륭한 일군이 있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더욱 넘쳐나는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역 학천농장 제7작업반
장 옥 주

천하제일강국의 억년기틀을 마련한 력사적사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이 력사적인 로선이 채택된 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되였다. 세인을 경탄시킨 병진의 장엄한 포성은 동방에 높이 솟은 백두산대국이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강성번영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결정적인 주로에 들어섰음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지금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선군혁명령도사가 비껴있는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병진로선의 제시는 사실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결코 단행할수 없는 력사의 장거였다. 그것은 한평생 선군혁명의 준엄한 길을 헤치시며 우리 나라를 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였으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필승의 힘의 원천, 우리 천만군민과 온 겨레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의 총진군에로 적극 떠밀어주는 원동력이였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선포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고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우리의 군사력,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수십년간 세계적규모에서 랭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았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핵무기보유가 전쟁을 막는 가장 위력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에 의해 선군조선은 강성번영과 만복창조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병진로선이 안고있는 진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2년간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격동적인 나날이였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드높은 기세에 질겁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적대세력의 기도를 결음마다 짓부셔버리였다.

위대한 전통의 계승은 최후승리를 담보한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더욱 과감하게 돌진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며 투쟁전통이다.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완강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원쑤들은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군민대단결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앞에 굴복하여 감히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였다. 병진로선이야말로 이 땅에서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치게 하는 가장 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이 더더욱 명백해졌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황홀하게 장식하는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최첨단으로 질주하는 경제발전성과들도 병진로선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다.

지금 적대세력내부에서까지 최근년간 《북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대북제재가 핵포기유도를 위한 경제적압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있다.》, 《병진로선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명이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핵무력이 보다 높은 종합적 성능을 갖춘 정의의 핵보검으로 강화되고 핵무력건설이 항구적인 혁명전략으로 됨으로써 우리 조국은 기존핵렬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고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강대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현실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계속 힘차게 나아가자면 불패의 병진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지금 미제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성공하지 못할것》이라느니, 《핵개발을 추진하는 한 번영을 누리지 못할것》이라느니 하고 악의에 차서 고아대고있다. 남조선괴뢰들도 덩달아 《도저히 량립될수 없는 로선》이라고 떠들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제넘게 나발질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덤의 망두석도 웃을 허튼수작이다. 조선반도의 평화, 우리 인민이 향유하고있는 모든 새 문명의 창조물과 행복한 생활은 다름아닌 병진로선의 산물이다. 이 엄연한 현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최후승리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은 확고부동하다.

주체적인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최 문 일

날강도적인 총련탄압을 용서 못한다

일본반동들이 조일관계사상 최악의 반공화국, 반총련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26일 경찰깡패들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은것이다. 이른아침을 리용한 도적고양이식기습과 장갑차량에 의한 삼엄한 봉쇄, 방대한 취재진동원 등 치밀한 계획밑에 감행된 이 천하의 날강도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분노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사건의 전말과 그에 대한 시비는 둘째치고 우선 일본당국에 묻는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건가. 지금껏 일본에서 총련을 과녁삼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칼질하는 악행들이 수없이 저질러졌지만 총련의장의 자택에까지 더러운 발을 들여놓는 망동은 없었다. 다름아닌 《불행한 과거청산과 현안문제들의 해결》로 조일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떠드는 현 일본당국에 의해 이런 치떨리는 폭거가 버젓이 감행되였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태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일본반동들의 도발책동이 날로 흉악해지고있으며 그들이 줄곧 떠드는 조일관계개선이란 저들의 간특한 속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온몸이 입이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이번 망동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위법행위, 엄중한 인권유린이며 악의에 찬 정치탄압, 파쇼폭거이기때문이다.

애초에 일본수사당국이 단행한 강제수색의 구실자체가 터무니없는것이다. 총련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동포기업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사건에 《총련이 관련된것이 의심》된다는것인데 세상에 이따위 생억지가 어디 있는가.

혐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수색압수는 관련성이 립증되고 증거가 제시되여야 가능하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일본경찰에게는 아무런 객관적증거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저들의 형사소송법마저 완전히 무시하였다.

문제의 동포기업은 총련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총련의 책임일군들은 그 존재조차 모른다. 그러니 방대한 경찰무력이 동원되여 여러시간동안 샅샅이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쥐지 못하고 헛물만 켠것은 당연하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일본반동들의 이번 탄압소동이 그 어떤 타당한 법적근거가 아니라 순수 불순한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반공화국, 반총련도발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 목적은 명백하다.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감정을 고취하여 일제식민지파거사를 깨끗이 청산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여론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저들의 우경화정책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이번 강제수색소동에는 또한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시대적흐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려는 불순세력의 정치적음모도 깔려있다. 조일 두 나라가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은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는 외교대표부적역할을 수행하여오고있다. 결국 총련의 책임일군들에 대한 인권유린만행은 조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책동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또다시 연장하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차별적대의식과 표리부동성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다. 이번에 그것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반동들은 지금 불신의 분화구를 일부러 터뜨려 그 누구를 압박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어리석은 망상가들에게 충고하건대 총련에 대한 박해는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일본당국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조일관계의 운명을 망쳐놓을수 있는 현 사태앞에서 마땅히 심사숙고해야 하며 경솔하고 무분별한 이번 강제수색만행에 대하여 총련과 우리 공화국 앞에 엄숙히 사죄해야 한다.

허 영 민

대결광의 파렴치한 《북비핵화》 타령

피뢰당국자들이 외세와 만난 자리에서 줄창 늘어놓는 고리타분한 수작이 있다. 《북비핵화》 타령이다. 며칠전 남조선집권자가 청와대에서 일본외상 기시다 등 주변나라 외교당국자들과 만나 벌린 추태도 《북비핵화》 간판밑에 외세를 청해들여 펼친 또 하나의 역스러운 반공화국광대극이다.

이날 피뢰집권자는 핵문제해결이 《안정적남북관계발전》은 물론 《동북아정세안정에 기여》할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북비핵화의 실질적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구걸하였다. 외세에게 반공화국핵공조를 청탁하며 동족을 모해하고 한사코 고립압살하려는 피뢰패당의 고약한 속심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안정적남북관계발전》이니, 《동북아정세안정》이니 하며 반공화국핵소동을 정당화한것은 조소만을 자아낸다.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침략을 노린 《북비핵화》라는것이 파연 북남관계발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

피뢰들이 추구하는 《북비핵화》가 외세와의 작당으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제거하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북침구호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피뢰당국은 《북비핵화》를 대결정책실현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반공화국제재와 압력, 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려왔다.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된것도 명백히 그때문이다. 이번에 남조선집권자가 주변나라 외교당국자들과 만나 또다시 핵문제를 거들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결기도를 드러낸것은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외세와의 공조로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북비핵화》책동이야말로 《남북관계발전》과 《동북아정세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도리여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의 불안정만 초래하게 될것이다. 그런데도 피뢰집권자가 그 무슨 《발전》이니, 《안정》이니 하는 미사려구를 쏟아내며 주변나라들에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협력을 애걸하였으니 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처사가 아니겠는가. 피뢰패당이 아무리 화려한 면사포를 쓰고나서도 저들의 흉물스러운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면 외세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동족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걸고드는 도발적망동을 걷어치우고 북침전쟁도발책동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피뢰호전광들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혈세를 탕진하며 침략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심각한 론난을 일으키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배비움직임도 그것을 말해준다. 바로 이런것이 북남관계를 파피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것도 미국과 피뢰들이고 그 해결을 가로막으며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호전광들도 다름아닌 그들이다. 결국 피뢰집권자의 언행은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을 합리화하면서 외세에 빌붙어 반공화국압살기운을 고취하고 핵전쟁불집을 터뜨리려는 범죄적계책의 발로외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압력이 가해지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핵억제력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집권자가 조선반도핵문제를 빚어낸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보살을 하면서 뚱딴지같이 《북비핵화》나발을 불어댄것을 보면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다. 그런것을 보고 아이 못 낳는 녀자가 밤마다 룡꿈을 꾼다고 한다.

자존심도 없이 대국들의 짬에 끼워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비굴한 청탁외교나 벌리는 식민지주구들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우리를 감히 해치려고 혜덤비는것이야말로 조리로 물푸는 격의 어리석은짓이 아닐수 없다.

피뢰들이 《북비핵화》를 떠들며 아무리 외세에 빌붙어도 헛된짓이다. 남조선당국은 망상에서 깨여나 외세의존,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이나 버리는것이 좋을것이다.

전 종 호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탄압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성명

지난 3월 26일 일본반동들은 수십명의 경찰과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며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의 책임자들인 총련중앙 의장과 부의장 등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총련이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동포단체로서 조일사이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역할을 수행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우기 과거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40여년동안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일본으로서는 저들의 과거범죄의 참혹한 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을 지켜주며 총련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온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감히 총련중앙 책임일군들의 집에까지 불법침입하는 망동을 저지른것은 우리 공화국과 우리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적대의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아무런 법적타당성과 과학적근거도 없이 총련을 그 무슨 사건협의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감행한 일본경찰당국의 강제수색을 두고 일본의 법률계와 언론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위법수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민족차별행위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는 일본반동들의 강제수색소동을 우리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탄압, 인권유린행위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적대감정을 고취하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책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일본당국은 이번 파쇼적폭거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앞에 사죄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정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조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불신과 반감을 고취하는 일본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이다.

주체104(2015)년 3월 30일
평 양

장애자들 생존권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련대를 비롯한 장애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6일 서울에서 결성과 관련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그 무슨 《보호》와 《동정》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4월 20일을 《장애자의 날》이 아니라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중심으로 장애자권리보장법제정, 로동권쟁취, 건강권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다리붕괴사고 발생

남조선의 《서울신문》에 의하면 25일 경기도 룡인시의 한 도로건설장에서 건설중이던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한다.

지난 2월에도 인천의 영종대교에서 100여대의 자동차들이 충돌하여 대참사가 빚어졌으며 서울을 동작구에서 종합체육관건설공사장의 천정들이 무너져 7명이 묻히는 등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남조선에서 끊기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동족대결에 미친 피뢰패당이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해나선것과 관련하여 3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8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피뢰패당이 유엔인권리사회 제28차회의에서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극악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내는데 적극 가담해나섬으로써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피뢰패당은 저들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는것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결의안》채택을 환영한다.》느니, 《북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느니, 《권고사항리행》이니 뭐니 하는 주제넘은 망발까지 쥐쳐대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더욱 매달리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동족대결이 골수에 꽉 들어찬 천하의 역적패당만이 감행할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로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못할 엄중한 도발이며 정면도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번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유엔인권리사회에서 강압통과시킨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려는 극악한 정치협잡문서이며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날강도적인 침략모략문서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기 그러한 모략광대놀음이 벌어질 때마다 허위와 날조로 엮어진 그 따위 《결의》라는것을 애당초 인정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라는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피뢰패당은 이번에 또다시 입에 칼을 물고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미국의 추악한 하수인, 동족대결광의 극악한 정체를 더욱 여실히 드러냈다.

피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적극 나서서 여러 나라들에 지지를 애걸하고 인간쓰레기들을 끌고다니며 《증언》이니 뭐니 하는 놀음을 벌려놓았을뿐아니라 국제무대연단을 통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가장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피뢰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악담질해대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의 극치이다.

오늘 마땅히 문제시되여야 할것은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실태이다.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항거하여 정의의 징벌을 가한것이 《테로》로 되고 동족을 찬양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종북》으로 몰려 가혹한 탄압을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인권실상이다.

종미사대에 미쳐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 미제강점군의 전횡과 파쇼적폭압이 살판치는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인권유린의 왕초들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더우기 공화국에 기여들었다가 적발체포된 피뢰정보원 간첩들의 자백으로 만천하에 폭로된것처럼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테로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피뢰패당이 그 누구에 대해 《인권》이요 뭐요 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피뢰패당이 선군으로 위용떨치고 일심단결로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최상으로 꽃피워나가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황한 《인권》소동으로 흠집을 내고 흔들어보려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으며 그것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이룰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겨냥한 미국과 피뢰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특히 피뢰패당이 유엔의 간판밑에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를 서울에 끌어들여 남조선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범죄의 소굴로 만들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러한 모략소굴이 남조선에 둥지를 트는 즉시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파녁으로,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될것이다.

피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팡란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비참한 후과를 빚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공무원년금개악 중단하라!》, 《국민생존권 지켜내자!》

서울에서 남조선 전지역의 공무원, 교원 8만여명 반 《정부》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공무원로동조합, 전국교직원로동조합, 공무원로동조합총련맹 등 공무원, 교원단체 50여개로 구성된 공적년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서울에서 피뢰패당의 공무원년금개악책동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가지였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공무원, 교원 8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가뜩이나 적은 로임을 받는 공무원들의 년금을 더 줄이게 하는 공무원년금개혁을 끌끌내 강행하려고 발악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정부》가 공무원년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조작하고 여기에 공무원, 교원단체들이 참가할것을 강요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권력에 추종하는 이런 기구는 인정할수 없으며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부정부패와 부자감세정책으로 부족되는 자금을 공적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때문에 로동자들의 삶이 끌장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일어나 현 《정권》 심판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 《정부》 투쟁으로 한줌도 안되는 보수집권세력과 재벌들을 청산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생존권 지켜내자!》를 비롯한 구호판 등을 들고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공적년금 강화하라!》, 《공무원년금개악 중단하라!》, 《정권이 획책하는 재벌감세, 기업감세 철회하라!》고 웨치며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로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민주로총 부산본부 총파업에 합세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로총 부산본부가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4.24총파업에 합세할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주로총이 로동자들의 생존권실현을 위한 대 《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4.24총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부당한 구실을 붙여 로동현장을 비정규직천지로 만들고 로동운동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재 로동자들은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서 로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의 총파업은 《정권》의 독주를 막고 로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수호부산련대, 부산녀성단체련합, 부산청년회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들도 박근혜 《정권》의 반로동자, 반서민, 반민주정책을 끌장내기 위한 민주로총 총파업에 함께 참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구호를 웨치며 투쟁의지를 과시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로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최악의 청년실업사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있다.

18일 피뢰통계청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2월 15살부터 29살사이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볼 때 헐씬 증가한 11.1%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일자리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청년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딸라제국의 종말은 력사의 필연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멸망의 어두운 그늘이 던져지고있다.

얼마전 미재무장관 제이코브 루가 미국회 하원금융봉사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미국회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해당 기구들의 개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들에서 미국의 지위가 위태로와지는 위험이 조성될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그는 개혁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의 《지도적역할》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최상의 방도로 된다느니, 미국경제와 국가안보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루루이 렬거하였다.

미재무장관이 무엇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개혁필요성을 주장하는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신흥경제국들로 불리우는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통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나아가서 세계에 새로운 금융통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들을 내오고있다.

올해 7월 브릭스개발은행이 가동하게 된다. 브릭스에 속한 5개 나라가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하는 이 은행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브릭스성원국들은 은행설립에 대하여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을 선포하였다.》, 《정치적변화를 포함하여 전지구적경제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을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세계중심력이 생겨났다.》고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고있다.

여론들은 브릭스개발은행이 국제통화기금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를 대신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계가 세워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재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은 결국 딸라의 주도적지위, 세계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배적지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다급히 내지른 비명소리이다.

가관은 국제통화기금을 개혁해도 약화되는 미국의 지위를 되돌려세울수 없다는데 있다. 미국회가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승인하지 않고있는것도 그것이 기금내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기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톤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통화기금은 자본주의세계의 기준통화로 되고있는 미국딸라의 지배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있는 통화기구이다.

1947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국제통화기금은 전적으로 금융분야에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으로 복무해왔다. 랭전종식후 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국제통화기금은 조난신호를 보내는 여러 나라들에 약간의 미국딸라를 대부해주고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지배적야망에 맞게 그 나라들의 금융제도를 뜯어고쳐놓군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금까지 딸라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딸라의 가치와 함께 세계경제발전의 《견인기》라고 하던 미국경제의 지위도 나날이 떨어지고있다.

여러해전에 미국에서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서방세계에로 급격히 번져지면서 서유럽나라들의 경제를 혼란상태에 빠뜨렸다. 그 과정에 미국딸라와 그의 지배적지위를 뒤받침하고있는 국제금융통화제도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반면에 지역적협조를 증시하는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이 신흥경제국들로 등장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던 8개국수뇌자회의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신흥경제국들이 망라된 20개국수뇌자회의 등이 세계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신흥경제국들은 그에 맞게 국제통화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세계금융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게 된 국제통화기금은 할수 없이 2010년에 그 나라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혁안대로 실행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차지하고있는 지배적지위는 약화되고 이전처럼 세계금융계를 좌우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미국회와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그 개혁안을 한사코 반대해나선것은 바로 이런 리유에서이다.

지금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개혁해도 지배적지위가 허물어지게 되여있고 개혁하지 않아도 쇠퇴몰락하게 되여있다.

딸라는 이미 국제기준통화로서의 독점적지위를 상실하고있다. 현시기 많은 나라들에서 딸라배척바람이 불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딸라대신 단일한 지역화폐로 무역결제를 진행하고있다. 이란과 로씨야는 원유대금결제에서 물물교환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알바성원국들의 공동화폐가 출현하였다.

로씨야와 중국은 무역결제에서 루블과 인민페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석유수출에서 앞선 자리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대금을 여러 나라들에서 현물로 받고있다.

유럽기업들이 미국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있다. 미국기업들까지도 무역거래에서 자국화폐가 아니라 다른 나라 화폐로 결제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화폐는 세계곳곳에서 배척을 받고있다.

미국딸라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신세가 되고있다.

다른 누구의탓도 아니다. 미국스스로가 딸라제국의 붕괴를 몰아오고있다.

미국은 딸라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딸라의 흐름을 통제할수 있게 국제금융통화체계를 수립해놓은 미국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 단체, 회사, 개별적인물들을 국내법에 걸어 제재명단에 올리고 송금을 할수 없도록 가로막아왔다. 이로 하여 반미자주적인 나라들뿐아니라 그와 경제적련계를 가지는 서방나라들까지도 딸라를 배척하고있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더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자국화폐를 다른 나라들의 체제전복과 《자유화》실현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각성을 높이고 배격하고있다.

세계는 딸라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났으며 그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이름있는 정세분석가들도 미국이 이미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딸라제국인 미국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리 현 도

《인권옹호》를 떠드는자들의 추악한 정체

미국잡지 《뉴스위크》에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회 상원정보특별위원회가 2001년 9.11사건 발생후 미중앙정보국의 테로혐의자구속 및 심문계획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요지가 실렸다. 실지 보고서는 6 000페지이상인데 아직 기밀해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요지만을 놓고서도 미중앙정보국의 심문수법을 옹호해나섰던 부쉬정권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잡지는 주장하였다.

《뉴스위크》는 또한 오바마라면 《반테로전》에서 부쉬처럼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스노우덴의 고발로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보도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투옥하고 거리낌없이 고문하는 인권말살의 왕초, 세계최악의 인권유린범죄자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원래 고문은 사람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형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규들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 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국제인권법규범들은 매개 국가들이 고문행위금지조치를 취하며 고문행위를 감행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불안정등을 고문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있다. 미국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해외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 홍문으로 물부어넣기, 관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 머리를 벽에 짓쫓거나 때리기 등 인간의 사고력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고있다. 이러한 야만적인 고문만행으로 사망한 수감자도 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의 만행은 명백히 특대형인권유린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문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비호두둔한 대통령 등 책임있는자들, 고문행위에 직접 가담한자들의 죄악을 싸고돌고있다. 미국회 상원정보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극악한 고문행위에 관여한 수많은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의 이름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미국이 극악하게 감행하는 인권범죄실태이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내에서는 피부색과 신앙이 다르다는 리유로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얼마전에는 미씨시피주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나무에 목매달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이 감행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오바마집권후 인종들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였다. 흑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기가 막힌것은 《인권의 본보기》나 되는듯이 행세하는 영국 등 유럽나라들이 미국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들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자국령토통과와 체류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인권범죄행위들에 적극 가담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나라들이 표방하는 《인권》이라는것이 한갓 기만이며 미국에 짝지지 않는 인권범죄자들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권교살국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여러 서방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성의 극치이며 진정한 인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며 소란을 피울 체면도 자격도 없다. 그렇게 놀아대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국제사회를 속여넘기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푼수없는 아낙네처럼 남의 인권을 놓고 시비질할것이 아니라 구린내나는 저들의 인권유린실태부터 세계앞에 깨끗이 드러내놓고 사죄하여야 할것이다.

리 학 남

제1차 태양컵 태권도선수권대회

몽골에서 진행

제1차 태양컵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얼마전 몽골민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대회개막식에는 리사장 므.멍흐바뜨, 총장 르.게렐트오트를 비롯한 몽골민족종합대학 인사들과 태권도선수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과 태권도사범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제1차 태양컵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이 선포되고 연설들이 있었다.

대 학리사장은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대 학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몽골의 새 세대들속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해마다 태양컵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대회를 통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학총장은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두차례에 걸쳐 몽골을 방문하심으로써 몽조친선관계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몽골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해마다 진행되는 태권도선수권대회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어 태권도경기와 시범출연들이 있었다.

방글라데슈에서 독립절 기념

방글라데슈에서 26일 독립절을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에서 대통령과 수상, 정부성원들, 수천명의 시민들이 민족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또한 거리들에 국기들이 게양되고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한다.

유럽동맹의 그릇된 시도 비난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싼드르 루까쉐비치가 최근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에 추종하고있는 유럽동맹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제재가 로씨야는 물론 유럽동맹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법적인것이라고 말하였다.

제재는 유럽회사들의 경제무역활동에 매우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유럽동맹이 미국의 본을 따고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슬로베니아수상 미로 쎄라르가 19일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동맹의 그릇된 시도를 비난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며 슬로베니아는 제재연장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강철생산, 철도현대화 추진

이란에서 올해에 들어와 첫 2개월동안에 277만 5 000t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최근 세계강철협회가 밝혔다.

한편 이란이 철도현대화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수도와 마쉬하드사이의 철도에 처음으로 현대적인 자동철길조종체계가 도입되였다. 국내의 기술자들이 개발한 이 체계는 철길의 형태와 특성에 맞게 렬차들의 속도를 조절통제함으로써 철도운수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한다.

경제장성전망

먄마에서 3월에 끝나는 현 회계년도에 경제장성률이 8.5%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회계년도에 비해 0.7%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25일 아시아개발은행이 밝혔다.

결핵예방노력

인디아정부가 24일 전국적범위에서 결핵예방을 위한 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결핵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다. 깜빠니야기간 결핵발병경위와 그 예방에 관한 해설선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자유무역지대창설을 결정

아랍국가련맹 성원국 무역 및 경제상들이 25일 에짚트에서 회의를 열고 아랍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상품무역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규정하는 등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게 된다고 한다.

련맹경제사회리사회 위원장은 자유무역지대창설은 아랍나라들이 오래동안 품어온 꿈이였다고 하면서 아랍인민의 번영을 위해 창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가 20일 스위스의 쮸리히에 있는 련맹본부에서 페막되였다. 회의에서는 2018년 로씨야월드컵경기대회 경기장소들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까타르월드컵경기대회를 그해 11~12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를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를 요르단에서, 2018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19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를 프랑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피해

- 네데를란드의 프레쏠랜드주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26일 이 나라 정부는 주에 있는 한 닭목장에서 H7N7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 닭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병지역으로부터 반경 1km안에 통행제한조치가 내려지고 닭들을 처분하는 등 긴급조치들을 취하고있다.

- 우간다에서 최근 장티브스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지난 한달동안에만도 캄팔라에서 2 000명이상의 장티브스환자가 등록되였다 한다.

-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9일 이 나라 보건 및 어린이복리성은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베이트브리쥐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15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이 지역 나라들에서 2만 4 842명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사망자수는 1만 29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피해가 가장 심한 시에라레온에서는 사망자와 감염자수가 각각 3 742명, 1만 1 829명으로 증대되였다 한다.

새로운 도로포장재료

타이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도로포장에 아스팔트와 고무를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포장재료를 리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재료는 아스팔트와 자갈을 혼합한것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스팔트에 전체 량의 5%에 해당한 분량의 고무를 혼합하여 재료를 만들고있다.

새 재료로 포장된 도로는 유연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높은 기온에도 표면이 변형되지 않으며 쓸림힘이 강해져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 이전에 비해 그 질이 훨씬 높다고 한다.

당국의 대외정책 비난

미국의 사회활동가, 전문가들속에서 최근 이라크전쟁발발 1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당국의 그릇된 대외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사회단체인 《평화를 위한 로병들》전국위원회 위원장 라멘도르프는 력대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정권이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것도 서슴지 않을것이라고 세계에 대고 떠들었지만 이라크에서 그러한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후 당국은 세계적범위에서 50개이상의 정부들을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를 꾸미거나 전복시켰으며 30여명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있다.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10년-2014년에 미국의 주요무기수출량은 2005년-2009년에 비해 23% 늘어났으며 세계적인 무기수출량의 31%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제정책쎈터의 선임연구원 매슈 호우는 당국의 대외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으로 일관되여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대표적실례로 사회적불안정과 혼란상태에 빠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을 꼽을수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나라의 사회활동가, 전문가들은 군사적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부당한 대외정책을 걷어치울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단죄하는 일본인들

월간국제정세개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야 한다

이달에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의 긴장격화가 국제사회계의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끌끌내 벌려놓았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전쟁광기에 들며 합세하였다.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련합군》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의 수뇌부《제거》, 《평양점령》을 목표로 감행하는 이번 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불보듯 뻔한 사실을 놓고 아닌보살하며 《년례적》이라느니, 《방어적》이라느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줴쳐대였다. 그야말로 낯가죽이 곰발통같은자들의 궤변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추구하고있는것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와의 힘의 대결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배치되게 고의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갔다.

미국은 또한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요란하게 광고하며 남조선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를 배비하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지역나라들에 더 큰 위협으로 되는것이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도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우세를 유지할수 있게 해줄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냈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날로 더욱 무모해지는 미국의 반공화국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과시할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다.

이달에 진행된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등은 우리 혁명무력의 막강한 군력과 멸적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는 오직 총대로 맞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이달에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싼 로미마찰도 더욱 격화되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문제를 걸고 대로씨야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발뜨해연안나라들에 비행기와 병력을, 흑해에는 나토함선들을 증강하였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국경부근에서의 나토의 무력확대 등 자국의 군사적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응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안전이 확고히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의 불고그라드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화학 및 세균전에 대비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군인들이 야간조건에서 전투기술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한편 뜨베리주에서는 전략로케트군의 대규모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밤에만 진행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낮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이동식전략미싸일종합체 《또뽈》과 전투직일근무에 진입한 미싸일들의 빠른 기동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것이였다.

분석가들은 이번 로씨야의 군사연습이 침략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하려는 로씨야의 강경립장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평하였다.

이달에 중동지역 정세도 복잡다단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라크와 수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일부 나라들에서 《이슬람교국가》가 군사행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로 하여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상한것은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테로집단들이 어떻게 되여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활개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의심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이전 수상 마하디르가 조직한 《새 세계질서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테로와의 전쟁》은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과 그의 동맹자들에 의해 꾸며진것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연설자들은 《알 카에다》와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그루빠들에 다름아닌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 등이 자금을 대주고있다고 주장해나섰다. 《이슬람교국가》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대중동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산물이다.

이달에 일본반동들이 과거청산문제를 놓고 철면피하게 놀아댐으로써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비난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 안전보장법초안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정식 제출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전보장법초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그 안전보장법초안이 정식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채택되면 《자위대》의 해외진출은 정상적인 일로 된다.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것을 합법화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그로 하여 일본은 국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이 일본을 방문하여 현 정권은 물론 야당세력들에게까지 과거를 옳바로 보고 대해야 한다고 충고를 주었다. 손님으로부터 면박을 당한 일본은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어쩔줄 몰라하였다.

현실은 성노예문제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바로 청산하지 않고 계속 력사외곡에 매달리는 경우 일본에 차례질것은 고립과 수치뿐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달에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정부전복, 지배책동이 응당한 배격을 받았다.

얼마전 베네수엘라대통령 마두로가 TV방송에 출연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의 정변음모사건에 미국정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것을 증명하는 비데오자료가 제시되였다. 거기에는 미국변호사가 이 나라의 반대파세력의 한 성원에게 지시를 주는 영상자료가 기록되여있었다. 이 자료들은 베네수엘라의 현 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 미국이 막후에서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해주었다.

베네수엘라는 자국에 체류하고있는 미국인들이 자국령토에서 진행하려 하는 모든 회의를 자기 나라 정부에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한편 자국주재 미국외교관들의 수를 극력 제한하고 미국인들의 입국절차를 엄격히 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기며 정부전복음모까지 짜고있던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국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없다.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힘만능론》에 환장한 제국주의세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해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이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이 다시금 력사에 새겨주는 진리이다.

라 명 성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총기류, 폭력범죄

미국 플로리다주의 탐파시에서 25일 미성년에 의한 총기류범죄가 감행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시에 있는 한 살림집에서 13살 난 소년이 말다툼을 벌리던 끝에 자기 형과 동생에게 무턱대고 총사격을 가하였다. 결과 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형은 중태에 빠졌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크턴시에서 최근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차를 타고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였다. 결과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나라의 AP통신은 스톡크턴시가 2012년에 경제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파산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폭력행위가 더욱 성행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난해에만도 시에서 각종 폭력행위로 49명이 살해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뉴 올리언즈시에 있는 한 국제비행장에서 20일 60대의 남성이 마구 칼부림을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일본 효고현의 아와지섬에서도 최근 40대의 남성이 자기 이웃들에게 마구 칼부림을 하여 5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무장강도행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3일 강탈행위를 일삼던 7명의 무장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이보다 앞서 10일 프랑스 빠리의 동남부지역에서 복면을 한 15명의 무장범죄자들이 보석을 운반하던 소형뻐스들을 습격하여 900만€어치의 보석을 강탈해갔다. 한편 이딸리아의 깜빠니아주에서 24일 살인과 유괴를 일삼던 무장범죄집단이 적발되여 12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따약밀수

뽀르뚜갈의 리스봉비행장에서 16일 마약밀수행위가 적발되여 2 500봉지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범죄자가 불잡혔다 한다.

싸이버범죄

영국에서 최근 싸이버범죄가 성행하고있다.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6일까지의 5일동안에만도 정부기관들과 기업체들의 콤퓨터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절취하고 악성비루스를 개발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던 57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팔레스티나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미군기지건설 반대

일본 오끼나와현 지사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혔다.

최근 헤노꼬연안지역에서 주일미공군기지건설을 위한 시추작업이 벌어진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방위성이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502(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